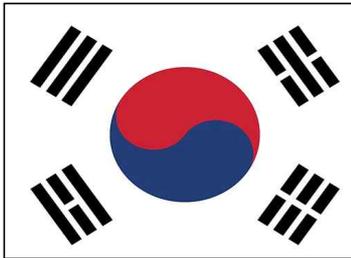




# 바다무지개

2015년 3월호

### ▶ 3.1절 ◀



5대 국경일의 하나로 3월 1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일제의 압박에 항거, 전 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령」을 제정, 공포하여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하였습니다.

이 날은 3부요인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며, 조국광복을 위하여 싸우다 순국한 선열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별도로 탑골공원에 모여 그 날의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광복회 회원들에게 철도· 시내버스·수도권전철 등에 대한 무임승차의 편의를 제공하며, 전국의 고궁 및 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가정은 전국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여 그 날의 의의를 기립니다.

#### 대표 인물



**손병희.** 천도교(동학) 지도자이자 한국의 독립운동가입니다. 본관은 밀양입니다. 본래 이름은 손응우이며, 망명 중 사용한 가명은 이상헌, 최시형에게 받은 도호는 의암입니다  
1919년 민족대표 33인중 한 명으로 3·1 운동을 주도 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병보석으로 출옥한 후 1922년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별세하였습니다. ▶



**◀ 김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통일운동가·교육자·정치인입니다.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하였고, 교육·계몽운동 중 일본경찰에 수감되기도 하였습니다. 1919년 이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참여하여, 의정원 의원, 경무국장, 내무총장, 국무총리 대리, 노동국 총판등을 지냈습니다. 1921년 이후 사회주의에 입각한 일부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결별하고, 만주 사변이후에 일본의 중국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중국내 여러 지역으로 임시 정부를 옮겨다니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1926년 12월부터 1927년까지 1930년부터 1933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은 이후 국무위원을 거쳐 1940년 3월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의 주석을 지냈습니다. 1945년 광복이후에는 신탁 통치 반대 운동과 임시정부법통 운동을 하였으며, 1948년 1월부터 남북 협상에 참여하였습니다.



**▲ 유관순.** 한국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3.1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본 제국의 모진 고문으로 18세 때 순국하였습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으며, 1996년 이화여자고등학교는 명예 졸업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의 생가가 복원되어 1991년 사적 제23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 달의 INTERVIEW



국적 : 방글라데시(Bangladesh)  
 성명 : MD MONIR HOSAN KAHAN  
 나이 : 26세



우선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은 남동쪽으로는 미얀마와, 남쪽으로는 벵골만과 접하며 나머지 지역은 인도와 접한다. 국명은 벵골의 나라라는 뜻이다.



\* 참조 : [네이버 지식백과] 방글라데시 [Bangladesh, 孟加拉国] (두산백과)

세계 제일의 인구 조밀국으로 외국 원조가 정부 재정지출의 반을 차지하고 인구는 약 1억 4천만명으로 추산되며, 인구밀도는 860명/km<sup>2</sup>로서 세계 1위 국가이다. 벵갈인이 98%를 차지하고 비할, 차크마, 무갈, 아랍인, 파탈족등 소수민족이 있으며 벵갈어가 국어이고 도시지역에서는 기초영어가 통용되므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영어소통에 불편이 없다. 종교는 이슬람(86.5%)이 국교이며, 이밖에 힌두교(12.2%), 기독교, 불교를 믿고 있다.

방글라데시 수도는 다카(Dhaka)로 방글라데시 중앙부에 위치하는 최대의 도시이며 상업·공업 중심지이고, 주트·면과 식품 가공 등의 제조업이 발달해 있으며 벵골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사진2] 리샤, CNG, 마차의 고향

MONIR의 고향은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Dhaka)에서 170Km 중남부 지점으로 버스 타고 3시간 정도 가는 3대 국제내항 중의 한 곳인 찬드푸르(Chandpur)항이다.

고향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짓는데 감자, 양파, 고구마, 마늘, 고추 등이 주생산물이다.



[사진3] 찬드푸르의 아이들

고향 찬드푸르는 1897년 시가 된 카티아 강과 메그나 강의 합류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주요 항마 선적 중심지로 도로와 철도를 통해 코밀라 및 노아칼리라 이어지며 강을 항행하는 기선을 통해 고알룬도가트·나라양간지와 이어진다. 푼카타라는 순다르반스를 거쳐 운행하는 기선으로 연결된다. 화력발전소에서 얻는 동력을 이용해 항마 프레스업, 제유업, 합판가공·성냥·화학제품 제조업 등 여러 산업이 발달했다.

\*참조 : [브리टे니커]

MONIR의 아버지는 상가 임대업과 식료품 유통업을 하시는 그래도 조금은 형편이 좋은 가정의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누나 1명과 여동생 2명의 다복한 가정이기도 하다. MONIR는 대학에서 무슬림어를 전공하고 학교선생님의 길을 걸으려 했다. 대학의 학비는 기숙사비를 포함하여 월 약15,600Taka (200\$, 20만원)지만 '향학열은 어느 국가 못지않게 강하다' 한다. 여동생 두명 중 한명은 중학교 선생님인데 월 평균 15,600Taka(200\$, 20만원) 정도 봉급을 받고 또 한명의 여동생은 영어전공의 대학교 1학년생이라 한다. 그러나 어느 가정이든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누나가 결혼하여 아이가 세 명인데 이혼하여 함께 살고 있다. 누나가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는 관계로 조카를 키워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래서 MONIR는 3명의 조카와 누나를 돌보기 위하여 해외취업의 길을 택하게 되고 한국어를 6개월 이상 꾸준히 공부하여 한국에 취업하게 되었다.

MONIR는 2012년 04월에 입국하여 현재 근무회사는 경남 의령에 있는 금속회사인데 파이프제조업으로 일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파이프 자르는 작업 이라 한다. 30여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그중 외국인근로자가 11명(방글라데시 4명, 베트남 4명, 인도네시아 3명)이 일하고 있다. 회사 대표님이 너무도 따뜻한 마음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을 대해주셔서 고마움에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 대표님이 외국인근로자들을 사랑하시니 회사 전 직원들도 모두 친절하고 자상하다. '이런 회사는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다' 고 힘주어 말한다. 또한 대표님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을 잘 하고 있어 너무도 고맙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래서 일주일에 2회 정도 치킨 파티도 해 주시고 1년에 4번 정도의 회식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 주신다. 1일 12시간 정도 근무하며 토요일에는 17시(오후 5시)까지 일하는데 분기별로 보너스도 주신다.

MONIR는 열심히 근무하여 받은 급여의 1/4정도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3/4을 집으로 보내면 누나 병원비와 조카 생활비 그리고 그중 1/4은 본인을 위해서 저금을 해 주고 있다. 누나 가족을 위해 해외취업의 길을 택하고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다.

앞으로 한국에 있는 동안 일하면서 한국어, 자동차 운전, 한국노래 등 한국문화를 많이 익히고 CNC 등 기계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 특히, '한국의 기술교육을 위한 정부지원제도는 너무도 잘 되어 있다' 고 부러워한다.



[사진4] CNC 기술을 배우는 한국 학생

MONIR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여 저번 제38회 TOPIK 시험에서 Level 1의 1급을 취득하였지만 상 위등급을 취득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사진5] TOPIK 합격증 취득

아울러 E9 Visa를 E7 Visa로 바꿀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서 한국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훌륭한 기술을 배워 방글라데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술자가 되어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하게 되면 상가 임대업과 기계가공공장을 설립하여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방글라데시에서 잘 활용하려고 한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알루미늄, 봉재, 가구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거의 외국인들과의 합작회사이다. 방글라데시 국민은 부지런 하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MONIR와 같은 해외 기술 인력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면 부자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다.

지난 명절 연휴(15.02.19~20)에는 주한 방글라데시대사관과 협력하여 방글라데시근로자들의 여권 연장을 위하여 창원을 비롯한 경상남도 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40여명과 함께 주한 방글라데시대사관에 무박2일 코스로 다녀 오기도 하며 근로자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사진6]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방문

현재 MONIR는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CFC)에서 방글라데시 커뮤니티대표를 맡아 근로자들의 네트워크 구축하여 정보공유, 음식커뮤니티 또한 초기 입국 방글라데시근로자들의 멘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사진7] 센터 내 방글라데시근로자 커뮤니티



“MD MONIR HOSAN KAHAN” FROM BANGLADESH.

## 2015년 개강식

2015년도 2월! CFC에는 수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드디어 2월1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개강식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외국인력분들, 강사, 자원봉사자 그리고 김덕훈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월1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 강사 및 자원봉사자, 방글라데시 간담회



2월1일 개강식을 마치고 교육문화사업의 강사님 및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의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의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욱 외국인력분들이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효율적으로 받고 실력이 쑥쑥!! 오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또한, 2월1일 교육실에 옹기종기 모여 방글라데시 커뮤니티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방글라데시 외국인근로자들의 소중한 의견과 생각들을 들을 수 있었고, 센터장님께서도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시며, 좋은 방향과 의견을 제시해주셨던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WEDU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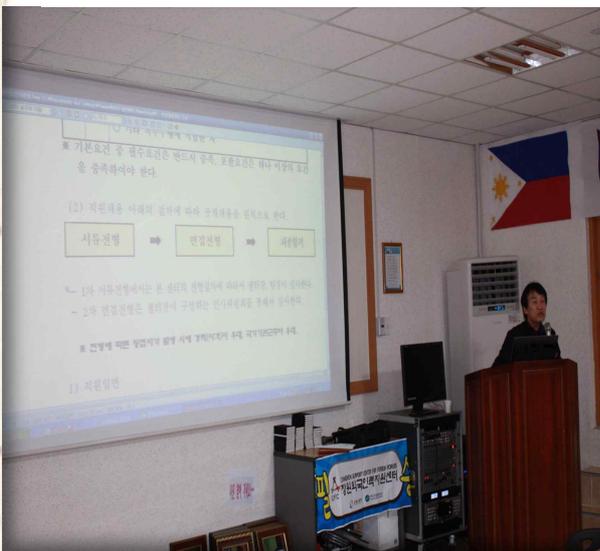
### 학습회말



2월의 첫 WEDUDAY를  
맞이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의 “행복속담” 코너에서는 프랑스 속담인 “The tongue wounds more than a lance.” -혀는 창보다 많은 상처를 준다-에 대해 말씀 하여 주셨습니다. 말을 할 때 신중히 하고 빠른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음시간부터는 각 나라의 쌤들이 돌아가며 각 나라의 속담에 대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시간에는 필리핀속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방침에 관하여 설명해주셨고, 2015년 각종 행사들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월 새내기 수업

2월의 첫 오전반 수업 ^\_\_\_\_^ ▶  
 아직 추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바깥  
 ㅍㅍㅍ 하지만  
 한국어 교육을 듣기위해 열정을 가득 품  
 고 센터를 방문해 주신 외국인력분들의  
 한국어 실력이 열정만큼 더욱 향상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들어요.  
 한국어 강사 쌤들과 함께 수업을 마무  
 리 하고  
 스마일 ^^ 하며 단체사진도 한 것!!!



◀ 2월의 첫 오후반 수업 ^^  
 새롭게 시작되는 컴퓨터 수업에는 인  
 터넷과 SNS를 포함한 유용한 정보득  
 이 한 가득있어요~~  
 오후반에는 오전보다 더 많은 외국인  
 력분들이 찾아와 한국어교육실을 후  
 끈!!! 달아오르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 무료 이머용 봉사회날



오늘은 제 9회 무료 이머용 봉사의 날 이었어요~

이른 시간 부터 멋쟁이가 되기 위해 센터를 찾아와주신 외국인 력분들과 고마우신 경남봉사미회 자원봉사단 분들 ^^

모두들 한결 멋있어진 모습이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예요~



## 제 3회 EPS국가 리더 간담회

센터에서는 2015년도에도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EPS체결 국가 리더 간담회를 가져  
2015년도 센터사업안내와  
각국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 각국 음식커뮤니티 일정과  
각국의 기념행사를 계획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도 사업계획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발전 될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 (외국인관련세미나)

2월 11일 수요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는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외국인근로자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하였고, 2부에서는 분임회의를 했습니다.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의 모습을 보고 각 팀의 담당 직원분들이 모여 서로의 센터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배움 점은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였습니다.

다음번에는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 직원분들이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



## 제3회 한류음식체험 “설 명절 떡국나눔”

2월15일 일요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월19일 설을 맞아 설의  
대표음식인 떡국을 먹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교육실북도 한켠에서는 떡국에  
들어가는 가래떡 썰어보기  
체험도 하고, 다목적 홀에  
차려진 설음식들은 먹어보며  
한국의 설을 느껴보는 시간  
이였습니다.



## 1월, 2월 생일파티

2015년부터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그달에 생일이 있는 외국인력분들의 생일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파티의 주인공들은 1월, 2월 생일을 맞은 외국인력분들이였습니다~

생일 촛불도 붓고, 케이크도 먹고, 선물까지 !! 받으며 즐거운 파티를 했습니다 ^^

1월, 2월 생일이신 분들!! 생일 축하 드려요 ^^



**LG : SK**  
**농구경기 관람**



창원 LG세이커스 농구단과 협력하는 CFC는 창원 LG세이커스의 초청으로 무료 농구경기를 관람하며 즐거운 연휴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더불어 창원LG 농구팀이 승리하여 더욱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었어요 ^^

앞으로도 경기 초청이 예정되어있어 기대가 되네요!!



## 동아리 활동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매주 일요일, 모여서 저마다의 끼와  
재능을 뽐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K-POP스타!!!!  
외국인력분들의 노래 솜씨와 유창한  
한국어 솜씨에 놀라게 되네요^^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  
영화 감상의 시간을 가졌어요^^ ^^

오늘 본 영화는 "폼페이인의 최후" 인데요  
함께 봐서 그런지 더욱 즐거운 영화감상의 시간이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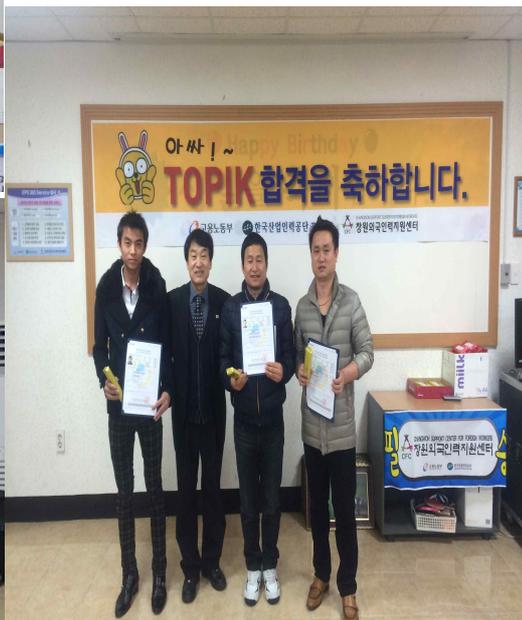
# 제 38회 TOPIK 합격

제38회 TOPIK 시험을 합격한  
자랑스런 외국인력분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두어서 너무 기쁘네요  
^^

한국생활의 적응에서 '정착'  
단계로 나아가는 멋진 모습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



## CFC 우수상담사례

### ▶산재 및 임금체불 관련 상담◀



상담통역원 신지아

#### ○상담개요

- 건설현장 사업장에 고용 중인 캄보디아근로자 산재사고로 인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 입장 차이가 발생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 2015.02.02(월)

#### ○진행과정 및 결과

#####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2013년 6월 캄보디아 근로자 슘 피살과 티엡 소피압은 사업장 건설현장에서 돌이 굴러 무릎을 다쳐 서경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 2014년 12월 근로자들이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재진료를 받은 결과 인대손상과 연골이 파열되었다고 확인되었다. 근로자들은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받기위하여 노동 지청에 산재 미 신청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 병원의사에게 확인한 결과, 담당 의사의 소견은 최초 부상으로 인해 현재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외부 충격에 의해 상태가 악화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당시 진료를 한 의사가 아니라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고, 사용자는 1년이 넘게 지나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길 원하고 있어 센터에서는 치료기간 중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 할 수 있도록 요청 하였고, 근로자도 치료기간 중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되면 진정을 취하 하겠다는 입장이다.
- 근로자의 무릎이 악화된 것은 애초 사업장에서 일어난 부상으로 인해 발생되었고, 근로자를 관리할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을 상담해 주었다. 분쟁으로 갈 경우 산재 미신고에 대한 벌과금 및 지도점검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에 합의하기로 하고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3월25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2. 상담 포인트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휴업급여만 지급해 준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었으나,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는 인권단체가 개입하여 근로자를 조정하여 치료 휴유증에 대한 보상금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였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에 합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근로자에게 인권단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센터 통역원을 통해 애로 사항을 지원받기로 했다.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산업재해보상법 제 5 조 ( 정의 )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인정기준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법 제 5 조 ( 정의 )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장 (이하“사업“이라함 .)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 CFC 3월 행사 안내

### 첫째주

- ▶ 무료진료 - 센터상담실 (14:00~16:00)
- ▶ 찾아가는 이동상담
  - 고성군 동해면,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 ▶ 통영고용센터 이동상담
- ▶ 토요일이동상담 - 외국인밀집지역 (13:00~16:00)

### 둘째주

- ▶ 무료이미용서비스 - 교육실복도 (09:00~12:00)
- ▶ 진주고용센터 이동상담

### 셋째주

- ▶ 무료진료 - 센터상담실 (14:00~17:00)
- ▶ 통영고용센터 이동상담
- ▶ 상담봉역원 역량강화교육 (15:00~17:00)

### 넷째주

- ▶ 제39회 TOPIK시험실시 - 경남대학교 (08:00~)
- ▶ 건강상담 - 센터상담실 (14:00~17:00)
- ▶ 1/4분기 workshop (15:00~17:00)

### 다섯째주

- ▶ 생활법률교육 실시-한국어교실(11:00~12:00, 14:00~15:00)
- ▶ 외국인근로자 생일축하행사 - 다목적홀 (15:00)
- ▶ 경남일일투어(예정)

## CFC와 함께해요 😊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를 사랑해주실 줄  
 비가 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OK~! 망설이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  
 자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mail: [mfwc@hanmail.net](mailto:mfwc@hanmail.net) ☎ 055-253-5270~4

홈페이지주소: [www.mfwc.or.kr/](http://www.mfwc.or.kr/)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70-4481-6703



070-4481-6702



070-4481-6701



070-4481-6704



070-4481-6705



070-4481-6706

## 나라별 상담전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

### < 후원 계좌 >

경남은행 513-07-0195121  
 예금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외환은행-현물



오용환 - 현금 (100,000원)

(주)대현시스템 - 현금 (200,000원)

유가네칼국수 - 현금(200,000원)